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59호 / 10월 28일

중국사회과학원 秋季報告, 내년도 성장률 7.9% 전망

1. 개요

□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2002年 秋季報告(中國經濟形勢分析與豫測)를 통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7.8%,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7.9%로 전망함.¹⁾

- 금년도 중국경제는 ▲내수확대 정책의 실시, ▲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증가, ▲미국의 경기회복 등 대외환경의 호전으로 인한 수출 증가, ▲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.

- 내년도 경제도 내수와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7.9%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.

□ 내년도 경제정책 건의에서는 금융정책의 비중을 높여 재정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.

1) 사회과학원의 '추계보고'는 매년 10월 발표되는 경제분석 및 예측 보고서로 국내외에서 매우 신뢰성 높은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음.

- 또한 정부투자가 민간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, 이를 위해 농촌부문에서는 전반적인 농촌주민 소득제고를 위한 정책을, 도시부문에서는 저소득층의 고용안정 정책을 건의함.

2. 주요 경제지표 전망

가. 금년도 경제지표 예측

- 금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은 7.8%이고, 각 부문별로는 농업 2.6%, 제조업 9.5%, 서비스산업 7.2% 성장이 예상됨(<표 1>참조)
- 제조업 중 중공업과 경공업은 각각 10.1%, 9.3% 증가할 전망이다. 고정자산 투자액은 14.2% 증가한 4조 2,120억 원으로 예상됨.
- 소매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-1.9%와 -0.7%를 기록할 전망이다.
-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은 10.2%, 농민 순수입은 4.8%, 소비재 소비총액은 8.6%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- 재정수입과 지출은 각각 1조 8,590억 원(13.6% 증가) 및 2조 1,610 원(14.7% 증가)으로, 재정적자가 3,0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수출은 15.0% 증가한 3,060억 달러, 수입은 14.6% 증가한 2,790억 달러로 무역흑자는 270억 달러로 예상됨.

나. 내년도 경제지표 전망

-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7.9%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부문별 성장률은 농업 2.8%, 제조업 9.4%, 서비스산업 7.3%로 전망됨.
- 중공업과 경공업의 생산증가율은 각각 10.0%, 9.1%로 예상됨.

- 고정자산투자액은 금년에 비해 11.8% 증가한 4조 7,090억 元으로 전망됨.
- 소매물가와 소비자물가 지수는 각각 -1.0%, 0.0%로 금년에 비해 디플레이션 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임.

<표 1> 금년 및 내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

		2002	2003
GDP	GDP 성장률	7.8%	7.9%
	농업	2.6%	2.8%
	제조업	9.5%	9.4%
	서비스업	7.2%	7.3%
고정자산투자	총투자규모	4조 2,120억 元	4조 7,090억 元
	명목증가율	14.2%	11.8%
	실질증가율	13.8%	11.0%
	투자율	40.7%	42.0%
물가	소매물가	-1.9%	-1.0%
	소비자물가	-0.7%	0.0%
	생산자물가	0.3%	0.8%
	GDP 디플레이터	0.0%	0.3%
소득증가율	도시주민가처분소득	10.2%	8.4%
	농민 순수입	4.8%	4.3%
소비	소비재 소매총액	4조 850억 元	4조 5,040억 元
	명목증가율	8.6%	10.3%
	실질증가율	10.7%	11.4%
재정	재정수입(증가율)	1조 8,590억 元(13.6%)	2조 1,410억 元(15.1%)
	재정지출(증가율)	2조 1,610억 元(14.7%)	2조 4,680억 元(14.2%)
	재정적자	3,020억 元	3,270억 元
금융	주민저축잔고(증가율)	8조 7,820억 元(19.1%)	10조 4,160억 元(18.6%)
	신규여신	1조 3,310억 元	1조 6,610억 元
대외무역	수입(증가율)	2,790억 달러(14.6%)	3,160억 달러(13.1%)
	수출(증가율)	3,060억 달러(15.0%)	3,420억 달러(11.7%)

자료: 中國社會科學院, 《2002年 中國: 經濟形勢分析與豫測》(秋季報告), 2001. 10

- 재정부문의 경우 재정수입과 지출은 각각 2조 1,410억 元(15.1% 증가), 2조 4,680억 元(14.2% 증가)으로, 재정적자가 금년에 비해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- 수출과 수입이 각각 3,420억 달러(13.1%)와 3,160억 달러(11.7%)를 기록하

여 무역흑자 규모는 금년보다 다소 감소한 260억 달러로 전망됨.

3. 금년도 거시경제 실적분석

□ 금년도 경제성장에는 고정자산투자와 국내소비의 증가가 크게 기여함.

- 금년 상반기까지의 경제를 분석해 보면, 고정자산투자가 24.4%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(GDP 기여율 65%), 소비와 순수출의 GDP 기여율도 각각 22%, 12.8%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.

○ 투자는 여전히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소비는 비록 GDP 기여율면에서는 투자에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한 안정세를 시현함.

- 한편, 금년 상반기 외국인투자는 실행액 기준으로 15% 늘어났는바, 금년도 전체로는 작년에 비해 10% 정도 증가한 5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며, 이러한 추세를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□ 산업 부문에서는 주택, 자동차 등 도시수요형 내수소비재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음.

- 이들 산업의 발전은 WTO 가입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, 도시지역의 수요가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함.

□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정책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재정 확대정책이 계속해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,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- 그러나 경제내부에서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있고, 정부투자의 지역적 형평성 여부도 문제시되고 있음.

○ 특히 정부투자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 및 서비스업의 발전이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, 향후에도 정책의 효율성 논란은 지속될 것임.

- 한편, 금융 부문에서 중국정부는 지난 2월 금리를 인하하는 등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, 이보다는 기존 은행의 개편, 민간자금 유치 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음.

4. 정책 제언

□ ‘추계보고’는 중국경제가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내수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함.

- 민간의 소비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촌소득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할 것임.
 - o 농촌의 경우 평균소득이 도시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농촌주민 전반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투자 및 소득보조정책을 마련해야 함.
 - o 도시 저소득층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유효수요가 낮다고 할 수 있는바,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우선시 되어야 함.
- 또한 정부 거시경제정책의 측면에서 확대재정정책의 지속에 따라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, 금후로는 금융정책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.(***)